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09년 12월 8일(화)**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녀공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남녀공학 중등학교에서의 성별교육 실태와 과제” 주제로 세미나 개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 포 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09년 12월 8일(화)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 3156- 7296, 이메일: aeri2008@kwi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오는 12월 9일(수) 오후 2시 본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남녀공학 중등학교에서의 성별교육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개요>

- ☐ 주 제: 남녀공학 중등학교에서의 성별교육 실태와 과제
- ☐ 일 시: 2009년 12월 9일(수), 오후 14:00 ~ 16:00
- ☐ 장 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 ☐ 주 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오는 12월 9일(수) 오후 2시 본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남녀공학 중등학교에서의 성별교육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 1999년부터 양성평등교육 강화를 목표로 중등학교의 남녀공학 확대정책이 추진된 지 10년이 흘렀으나 남녀공학 중등교육이 양성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최근 들어서는 남녀공학교육을 둘러싸고 내신성적에서의 성별 격차와 남학생과 학부모들의 남녀공학 기피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 이에 본원은 2009년 지난 10년간 남녀공학교육의 성별 교육 실태와 교육적 성과를 진단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번 세미나는 위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해숙 선임연구위원이 “남녀공학 교육 현황과 성별 교육경험 분석”을 주제로, 유진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학업성취도: 학교유형과 성별 차이”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행 남녀공학교육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양성평등한 남녀공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고 개최의의를 밝혔다.

붙임 1. 연구 요약본

붙임 2. 프로그램 순서

붙임 1. 연구요약본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중등교육단계에서의 남녀공학교육의 성과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현행 남녀공학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여 성 평등한 남녀공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첫째, 중등교육단계에서의 남녀공학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이론들을 검토하는 한편, 해외의 남녀공학교육 현황 및 정책동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학교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에서의 성차를 살펴보는 한편, 남녀공학 중·고등학교의 개별 학교단위 내신성적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분석하였다.

셋째, 중등학교 교사들이 체험한 남녀공학에서의 성별교육 실태와 남녀공학교육의 장, 단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기술하였다.

넷째, 학업수행, 진로 선택, 학교생활, 정의적 특성 등 남녀공학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경험 및 태도를 조사·분석하였다.

다섯째,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녀공학 교육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남녀공학이 성 평등한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남녀공학정책이 도입된 1999년을 기점으로 지난 10년간 남녀공학의 현황을 「교육통계연보」 원자료의 재분석을 통해 정리하고,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는 한편,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남녀공학교육 정책동향을 살펴보았다.

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연구 원자료 재분석

학교의 성별 유형에 따른 중,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 성별 격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5년간(2003~2007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학업성취도 원자료(raw data)를 재분석하였다.

다. 남녀공학 중등학교 내신성적 수집 및 분석

남녀공학에서의 내신성적 성차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남녀공학 중 중학교 53개교와 고등학교 54개교를 지역 규모를 고려하여 표집한 후, 2008년 기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배치고사 성적과 국어와 수학 두 개 과목의 2학기 기말고사 및 지필고사 성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남녀공학 중등학교 학생들의 교육경험 설문조사

남녀공학 학생들의 교육경험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 학생 1,494명,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496명 총 2,990명(남학생 1,492명, 여학생 1,4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학업수행, 진로선택, 학교생활, 정의적 특성 및 남녀공학에 대한 태도로 구성되었다.

마. 남녀공학교육에 대한 중등교사 대상 집담회 실시

남녀공학의 성별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총 18명의 중등학교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남녀공학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태도를 묻는 교사 집담회(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전국을 서울/인천/경기권, 부산/대구/경상권, 광주/대전/충청권의 3개 권역으로 나뉘, 총 4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바. 전문가 자문회의

교육에서의 젠더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수와 연구자,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및 시도 교육청 연구사를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연구 진행 상황 점검, 학생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와 조사도구 검토, 학업성취도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의 범위와 내용 등을 논의하였다.

4. 연구결과**가. 남녀공학교육 현황**

(1) 남녀공학 확대 정책이 추진된 1999년부터 지난 10년간의 남녀공학교육 현황을 「교육통계연보」 원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중등교육단계에서의 공학교육은 주로 국·공립학교와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별학교육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고등학교의 학업중단률은 2007학년도 현재 남녀공학(1.3%)이 가장 높고, 여학교(0.8%)가 가장 낮으며, 1999학년도 이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비평준화지역의 남녀공학생의 학업중단률은 1.7%에 달해 비평준화지역 남학교(0.7%)나 여학교(0.6%)의 학업중단률보다 2.5배 가량 높다.

(3) 남녀공학 고등학생 중 인문·사회과정을 선택한 비율은 62.0%, 자연·공학과정 36.0%로, 남학교(48.7%)에 비해 자연·공학과정 학생비율이 낮다. 특히, 남녀공학 학생은 성별에 관계없이 인문·사회과정을 선택하는 비율이 남학교나 여학교 학생보다 높아서, 이로 인해 공학 여학생들이 여학교 여학생들보다 성 정형화된 진로발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남녀공학 중학교의 졸업 후 진로양상을 보면, 1999년 이후 공학 졸업생이 별학 졸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업생보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 진학에서 더 좋은 성과를 보였으며, 이 같은 남녀공학 우위의 학교유형간 격차는 현재까지 점차 커지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남녀공학 여학생들의 약진이 두드러져, 2000년부터 여학생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여 매년 성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6) 2008년 현재 남녀공학 고등학교 졸업생(87.4%)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남학교(88.0%)나 여학교(89.3%)에 비해 낮으나, 10년 전인 1999년보다 학교유형별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공학보다 별학에서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높게 나타나는 추세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7) 4년제 대학 진학률 역시 공학보다는 별학에서 더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남녀공학 고등학교 졸업생의 4년제 대학진학률의 성간 격차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9년에는 공학 남학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여학생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2008년에는 대도시지역에서 여학생의 진학률이 약간 높아졌고, 도 지역에서도 남녀학생의 진학률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평준화 지역여부별로도 동일하게 나타나, 2008년 평준화지역 공학의 남녀학생 4년제 대학 진학률은 거의 같고, 비평준화지역은 여학생이 약간 더 높다. 설립유형별로는 남녀공학의 경우 국·공립보다는 사립학교에서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높은 추세를 보였으나, 별학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2005년 이후 도 지역에서 남학교는 사립에서 여학교는 국·공립에서 더 높은 4년제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8) 지난 10년간 학교급에 관계없이 남녀공학의 여교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2008년 현재 중학교 67.6%, 고등학교 49.9%) 전체교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남녀공학의 여교장 비율은 중학교 15.3%, 고등학교 5.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남녀공학 교직의 성별 위계구조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

나. 학업성취도에서의 성별 차이

1) 중학교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2003년에서 2007년의 5개년에 걸쳐 5개 교과를 대상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남녀공학과 별학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공학생이 별학생보다 우수학력 비율에 있어서 다소 높은 추세를 보였으며, 여학생은 국어와 영어, 남학생은 수학과 과학에서 우수한 성취를 보이는 경향이 드러났다. 특히, 남성적 교과로 인식되는 수학과 과학교과에서 공학 여학생이 별학 여학생보다 우수학력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 내신성적

전국에서 표집된 53개교의 남녀공학 중학교의 내신성적 조사 결과, 국어교과의 경우 1학년 입학 당시 배치고사에서 상위등급에서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그리고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약 1년간의 남녀공학교육을 받은 후 실시된 2학기말 고사에서는 입학 당시와 마찬가지로 상위등급에서 여학생 비율이 높은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어과 수행평가는 상위등급 여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교과와 경우는 입학 당시 배치고사 상위 등급과 하위등급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는데, 2학기말 고사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수행평가는 2등급에서는 여학생에게, 도 지역 1등급에서는 남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특정 성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도 크지 않았다.

2) 고등학교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2003년에서 2007년에 걸쳐 5개 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공학과 별학 간 성취도의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별학생의 성취도 평균이 공학생보다 높고, 성취수준별 분포에서도 별학생의 우수학력 비율이 더 높은 추세를 보였다. 한편, 성별에 따른 성취도의 차이도 비교적 뚜렷하여, 여학생은 국어와 영어, 남학생은 수학과 과학에서 우수학력 비율이 높았다.

□ 내신성적

전국 남녀공학 고등학교 중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표집된 54개교의 내신성적 조사 결과, 국어교과의 입학 당시 배치고사에서 지역이나 평준화 여부에 관계없이 여학생이 언제나 상위 등급에서 우세하였다. 또한 약 1년간의 남녀공학에서의 생활 이후 2학기말 고사에서도 입학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학생 우세 경향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행평가점수는 상위등급 여학생의 국어과 성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지역이나 평준화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수학교과와 경우 입학 당시 배치고사에서 상위등급과 하위등급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지역 규모와 평준화 여부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약 1년간의 남녀공학에서의 생활 이후, 2학기말 성적 또한 입학 당시와 마찬가지로 상위등급과 하위등급에서 남학생 비율이 높았으며, 지역이나 평준화 여부와 관계없이 수행평가가 수학교과의 성적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남녀공학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태도

(1) 교과활동 영역

□ 남녀공학 교육경험에 관한 교사집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수업태도와 선호교과에 있어서 남녀학생들 간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유를 주로 근원적인 성차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 교사들은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를 포함한 내신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평균적으로 우수하다는 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 남녀공학에서 평균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수하다는 인식은 남학생 학부모들로 하여금 남녀공학을 기피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남녀공학 학교와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이러한 행동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다.

(2) 교과외 활동 영역

- 교사들은 자치활동이나 행사참여와 같은 교과외 활동 영역에서 예전보다 여학생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증가하고, 참여에 있어서 성 정형성이 약화되는 추세라는 점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 교사들은 남녀공학에서 여학생과 남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교사의 훈육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 이성교제나 학교폭력과 같은 학교 풍토와 관련된 영역에서 교사들은 남녀공학이 별학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인식하고 있다. 남녀공학에서는 별학보다 이성간 만남의 기회가 많고, 이성교제를 하는 비율도 높다. 또한 학교폭력에 있어서 남녀공학은 그 빈도와 문제의 심각성이 덜한 편이다.

(3) 이상적인 학교유형에 대한 대안

교사들은 남녀공학과 별학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학교유형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인식하며, 구체적으로 학교유형은 공학으로, 학급유형은 성별 분리학급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주로 많이 지지하고 있다.

라. 남녀공학 학생의 성별 교육경험의 차이

(1) 학업수행

- 남녀공학 중·고등학생 총 2,9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요 5개 교과에 대한 태도에서는, 학교유형별 차이가 중학교의 일부교과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성별에 따른 차이는 고등학교에서 5개 교과 모두 뚜렷하다.
- 중, 고등학교 모두 남녀공학 남학생이 공학 여학생보다 수업 중 질의응답 및 발표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공학 교육환경은 공학 여학생들로 하여금 동료학생들을 더 많이 의식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학교급에 관계없이 공학 남학생(중학생 34.6%, 고등학생 29.8%)이 공학 여학생보다(중학생 15.7% 포인트, 고등학생 13.6% 포인트) 수행평가 점수 때문에 내신성적에 불리하다는 인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중학교는 사교육에 있어서 학교유형보다는 성별 차이가 더 크며 남학생이 더 오랜 시간 사교육을 받으나, 순수한 개인학습시간은 학교유형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데 반해, 고등학생은 별학생이, 그 중에서도 남학교 학생이 사교육을 가장 많이 받고, 개인 학습시간도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2) 진로선택

학교유형과 학생들의 진로선택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하고 싶은 계열과 희망교육수준 및 대학 진학 시 희망하는 계열을 조사한 결과, 중, 고등학생 모두 학교유형별 차이가 거의 없이 여학생은 인문계열, 남학생은 자연계열 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나 성별 차이가 뚜렷하였다.

(3) 학교생활

학교급이나 학교유형에 관계없이 공부 잘하는 것이 동료학생들로부터 선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유형별로 비교하면, 중, 고등학생 모두 별학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것, 교내활동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것이 공학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비해, 공학에서는 멋있는 외모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의적 특성

□ 학생들의 성차 및 성역할의식은 중, 고등학교 모두 공학생보다 별학생이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별학생의 의식이 더 진보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학생은 중, 고등학교 모두 학교유형에 따른 의식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비해, 별학 여학생들은 공학 여학생에 비해 진보적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녀공학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회성을 측정 결과,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중학교에서 남학생 우세의 성별 차이만이 확인되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사회성 점수에 있어서 학교유형은 물론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5) 남녀공학에 대한 태도

남학생과 남학생 학부모가 별학을 선호한다는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학생들이 별학을 1순위로 지망한 비율에 있어서 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남학생 학부모와 여학생 학부모간의 별학 지망비율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향후과제**가. 결론**

남녀공학교육은 중학교단계에서 주요 교과와 학업성취와 상급학교 진학률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가 하면, 중·고등학교 모두 별학보다 학교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과거에 비해 리더십 개발 기회 등에 있어서 성 평등한 모습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면이 적지 않다. 또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달리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관심이나, 외모 가꾸기, 이성교제 등에 있어서 남녀공학과 별학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공학교육이 기대와 달리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있어서 학생들의 성 정체화된 진로 선택을 완화하지 못하고, 진보적인 성역할 의식 형성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등 성 평등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교단계에서 주요교과와 학업성취도와 4년제 대학 진학률에 있어서 남녀공학이 별학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남녀공학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다. 그러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나 이러한 결과는 남녀공학교육의 효과라기보다는 중학교와 달리 학교 선택이 가능한 고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남녀공학과 별학 학생들간의 고등학교 입학 당시의 성적 차이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학업성취에 관심이 높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별학을 우선 지망한다는 남녀공학교사들의 증언과 이 연구를 위해 수행된 내신성적 학교조사 결과에서 입학 당시의 성적분포가 1년 후의 성적분포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내신성적 학교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공학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인 교과는 입학 당시에도 여학생에 비해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였으며, 입학 당시 여학생보다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인 교과는 1년 후에도 여학생보다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다. 따라서 남녀공학과 별학 간의 학업성취도나 4년제 대학진학률에서의 격차 또한 고등학교 입학 당시의 성취도 격차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나. 향후과제

(1) 남녀공학교육 내실화 정책으로 정책방향 조정

- 남녀공학이 양성평등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정책과제의 개발 및 추진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내 여성교육정책팀 신설 또는, 차선택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등에서 양성평등교육정책을 총괄하도록 제안 및 추진

(2) 남녀공학과 별학교육에서의 교육적 성취를 점검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체계적인 실증연구 실시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연구와 같이 기초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대규모 평가연구에 학교유형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관련 변인을 설정
- 교육성취를 학업성취에 국한시키지 않고, 초·중등교육이 목표로 하는 전인교육이 성취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

(3) 남학생과 여학생의 동등한 교육적 성취 지원

- 남녀학생의 동등한 교육성취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 개발
- 남녀학생의 동등한 교육성취를 위한 학교와 학부모간의 동반자 관계 형성

(4) 남녀공학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 제고

- 학생의 성별 구성이 학교의 성공을 가늠하는 절대적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학부모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당국의 역할 수행

(5) 남녀공학교육에 대한 교사 현장연구 지원

- 교사들이 남녀공학 교육현장에서 경험하는 학생들의 성별 차이를 분석·진단하고, 이러한 성차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적 개입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사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경력점수에 가산하는 방안 모색

(6) 교사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실시

-남녀공학교육이 양성평등한 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성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수활동에 대한 반성적 사고, 학생들의 성 정체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교수방식을 모색하는 교사 연수 실시

(7) 학교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및 성희롱 금지 학교규칙 제정 권고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학교규칙에 성희롱 금지 조항 삽입, 성희롱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과 구제절차 마련

붙임 2. 프로그램 순서

13:30- 14:00	등 록	
14:00- 14:10	개회사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사회: 민무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10- 15:00	주제발표	주제발표1 남녀공학교육 현황과 성별 교육경험 분석 정해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2 학업성취도: 학교유형과 성별 차이 유진은(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5:00- 15:40	토 론	김영식(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조경원(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정은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업성취도평가부장) 인주훈(이천 효양고등학교 교사)
15:40- 16:00	종합토론 및 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 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